

재앙 범접 못하는 민초들의 '이상향'

백두대간 속으로

(18) 청화산→대야산

청화산(靑華山, 984m) 오름길은 눈타에서 시작된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걸터앉은 백두대간의 등성마루이기도 한 이 고갯마루는, 속세로 마살나온 속리산이 사람들에게 길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북으로부터 공후서서 달려오던 백두대간이 속리산을 솟구쳐 울리기 전에 숨을 고르는 곳이기도 하다.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 그리고 충북 괴산군의 경계에 자리잡은 청화산은, 앞서 얘기했듯 이상향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땅을 사무치게 사랑한 한 사람이었던 이종환도, 이 산의 이름을 따 스스로를 '청화산인(靑華山人)'이라 칭했다. 그렇 우선 <백리지>를 통해, 이종환이 말하는 청화산의 중요성을 들여보자.

"청화산은 내외 선유동을 위에 두고,

앞으로는 용유동을 가까이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수석의 기이함은 속리산보다 훌륭하다. 산의 높고 굽은 비록 속리산에 미치지 못하나, 속리산 같이 험한 곳은 없다. 흙으로 된 봉우리에 풀린 돌은 모두 밝고 깨끗하여 살기(殺氣)가 적다. 모양이 단정하고 좋으며 배어난 기운을 가려온 곳이 없으니 거의 복지(福地)이다."

실제로 청화산은 산을 보는 눈이 트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한다. 육산이면서도 등성마루를

따라 도드라진 바위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듯봉우리인 것 같고,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산기슭은 햇빛이 풀어진 산비의 도포자락인 것 같다. 산지락 어디에고 속된 기운 같은 건 털털 하나라도 붙어설 자리가 없는 산인 것이다. 그렇다고 법인의 접근을 가로막을 정도로 개탈스럽지는 않다. 특히 정상 못이어서 사방이 탁 트이는 전망대 바위쪽에 이르는 순간은, 전신의 짓죽을 세우고 소리를 흡아올리던 관소리만이 일순 소리를

높고, 함축성을 짙게 하며 사물을 풀어놓는 장면인 것도 같은데, 아무리 바빠 줄여 할 길이었다면 이름에서는 짐도, 몸도, 마음까지도 다 놓아 버리고, 흘러가는 구름인 양 지나가는 바람인 양, 그렇게 쉬어가자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 등남쪽 기슭을 따라 눈길을 주면, 도인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가까운 기슭에 자리잡은 절을 볼 수 있다. 원적사(圓寂寺)다. 신라 무열왕 7년(660)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는 절이다. 창건 이후의 자세한 내력은 전해지지 않으나,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원효 스님의 진영은 언제나 새벽 밝음으로 도량을 지키고 있다. 법당 이외에 3채의 요사를 갖춘 현재의 모습은 1987년에 서암 스님이 이루어 놓았다.

자, 그럼 이름에서 왜 청화산이 도참사상적 혹은 풍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자.



대야산이 빛어 놓은 가령 중 하나인 용추계곡의 용추.

용유리 비결서 말하는 '우복동' 길지 원적사 가장 오래된 원효 진영 보존

허려 고와는 반대로, 까치나 매미가 일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듯이, 그렇게 한 세상 최소한의 먹을 것 걱정 없이, 전평이나 천재, 왕조의 흥망성쇠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일 없이 살 수 있는, 피난의 땅일 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 하나 있었다면, 언젠가는 '새 날'이 열려, 피난의 땅마저도 필요없어지는 그런 세상 만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청화산이 바로 그런 땅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복동(牛腹洞)'이다. 소의 뱃속처럼 편안한 땅이라는 말이다. 청화산 아랫마을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일대가 바로 그런 마을이라고 한다. 어째서? 형제봉에서부터 속리산 천황봉, 문장대에서 청화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형세는 흡사 뱃의 모양처럼 휘둘러 흐르는데, 활시위에 해당하는 맞은편의 산줄기는 청화산 등남쪽으로 흘러내려 화산 마을의 시루봉을 세우고는 청화산 아래에서 시작되는 병천(瓶川)을 사이에 두고 그 너머의 도장산(道場山)과 마주한다. 그리고 도장산은 속리산의 남쪽 돌머리인 갈령과 형제봉으로 이어진다. 외부 세계로 열린 부분이라고는 용유리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병천(농양천)으로 이어지는데 계속 흘러내리며 쌍룡계곡을 이룬다(뒤에 없으니 과연 그 형세가 소의 뱃속을 닮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복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곳 말고도 많다. 속리산 언저리 구룡리도 그곳이 곧 우복동이라고 굳게 믿는 정감복파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산은, 부랑하는 민중에게는 희망의 거처였고, 격랑에 표류하는 시대에는 개벽의 등지였다.

흔히 말하는 십승지지(十勝之地)도 우복동과 같은 의미의 공간인데, 참고로 계룡산권의 유구·마곡, 부안의 변산, 함천

의 가야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백두대간에 걸쳐 있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테면, 태백산과 소백산 언저리의 봉화·춘양, 영월, 예천, 속리산 자락의 보은, 덕유산에 가던 무주·무풍, 지리산의 등에 안긴 남원·운봉 등.

청화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건건이 나타나는 바윗길과 경쾌한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조항산(951.2m)에 이른다. 괴산군 청천면과 문경시 농암면에 걸쳐 있다. 크고 작은 바위를 다보듯이 안고 있는 정상에서의 조망은, 지나온 속리산과 청화산, 앞으로 가야할 대야산과 회양산 자락을 아우를 만큼 빼어나다.

이어지는 대야산(930.7m)은 속리산에서 회양산 사이 구간 중 으뜸의 산악미를 보여주는 산이다. 서쪽 기슭으로는 회양굴, 동쪽 기슭으로는 월영대, 용추계곡, 용소와 같은 가령을 밟아 놓았다. 정상 부위의 기묘한 암봉과 동쪽으로 굽진 직하하는 아슬아슬한 흐름은, 수림과 계곡과 조화를 이루어 산이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치를 연출한다.

다음 번에는 봉암사가 화두를 들고 앉은 회양산으로 간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순재식(사진작가)



크고 작은 바위가 숲을 이룬 대야산 정상. 속리산과 회양산 사이에 자리잡은 백두대간의 산들 중 가장 빼어난 자태를 지니고 있다.

"스님 죄송합니다"

순 콩으로만 만들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ISO9002 획득 //

맛을 책임지겠습니다.

재료의 절절한 선별과 원형향표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칼로스트를 0%, 방부제 0%,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다양한 채식제품이 있습니다.

야채편, 콩로스트, 비빔밥, 콩비빔, 현미떡, 현미떡볶이, 알찬콩단면, 라면, 라면면, 무알콜맥주 등...

<사원모집>
 상식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변태정신으로 일하고 최고의 보살핌
 맛을 준비한 가족을 찾습니다.

021455-8318/당시지정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021455-3288 www.vegetfood.co.kr

국내 최초 100% 채식전문기업 배지푸드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경) 사물(목탁, 요령, 태경,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첫수,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제형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핵심
- 신도5계 독도수계 입실전당 보살제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달림법(명출 위해 작성 독경 영불) 반혼1개-6대 전도 발인 화장 예절
- 49제(시령 대령 관속 지장정 시식 봉송 소대)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의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좌선법(간화선 목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정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살 발원)
- 목탁 요령 목비 징종 사용법 신중좌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령법
- 화엄시식 종사 영반 경안식 삼재놀이 특종시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주요공자 발취 강의 남쪽 개설 사업 운영등

- ◆ 모집인원: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시율반 9명 ③포교반 9명
- ◆ 원사접수: 현재 접수중
- ◆ 개강일시: 매월 1일 11월 21일 개강
-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영향 사진 3매
- ◆ 서빙성도국립세계 교목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사찰)간의 지도인 연의 제공
-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 월 회비: 백만원(기대)(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겨울나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싸운 키웠지 꽃도 키웠지 단풍도 들었어

침묵으로 부서져 내리는 그 어깨 위에서 바람소리로 외쳤어

기다림이야

아직도 울 수 없는 사랑이야

『한맥 문화 7월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당선 된 겨울나무의 4편』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함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분자원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공동(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사과문

지장기도법



금년에 저희 술과 학에서 지장기도법을 발행 하면서 청화 큰스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희들 임의대로 머리말 글과 맨 뒷장의 글을 실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하옵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책은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술과 학 대표 김 재광 합장